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민중봉기 기념식과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공연장에 설치된 희생자 영전에 한 참가자가 분향하고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동한 스님이 분신 희생자들을 위한 희성곡을 부르고 있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남카 스님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아이들도 티베트 평화를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3월, 티베트는 '자유·평화'를 꿈꾼다

**불시넷 등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추모문화제
3월 10일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서**

"FREE TIBET! FREE TIBET!(티베트에 자유를)"

공연에 나선 티베트인 가수가 그들 국가의 자유를 외친다. 그것도 이역만리 타향의 한국 불교 신자들 앞에서.

3월은 티베트 인들에게 뜻 깊으면서도 가슴이 아픈 달이다. 1959년 3월 10일 중국의 만행에 분개한 3만 명의 티베트 민중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지키기 위해 첫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총칼로 강경 진압했고 '신들의 땅'이라 불리우는 라싸는 8만 7000명의 티베트인들의 피로 얼룩졌다.

중국 정부의 침략이 이뤄진 1949년부터 1979년까지 30년 간 고문, 사형, 전투, 굶주림, 상해 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티베트인은 120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저항은 분신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스님, 민간인을 포함한 분신 희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티베트 첫 민중봉기가 이뤄진지 꼭 54년. 2013년 3월 10일 한국의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도 티베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행사가 열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후)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록빠 등이 주관한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기념식 및 분신 희생자 추모문

화제'는 티베트 현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민족 자치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의 추모 기도도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티베트 수상의 성명서와 한국 종교계, NGO, 예술인, 정치인들의 연대 선언들이 이어졌다.

롭상 생계 티베트 수상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1959년 3월 10일의 봉기는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비폭력 투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강경노선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롭상 생계 수상은 "달라이 라마 스님을 비롯한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도적 접근'을 추구해왔다"며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얼마든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지도부가 평화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대화를 제안했다. 텐진 남카 스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비폭력과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티베트 망명정부는 '분리 독립'이 아닌 '완전한 자치'를 원한다.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이어 "많은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티베트의 진실'을 외치며 분신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티베트의 현실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종교계·NGO·정치권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후 스님은 '부끄럽다'는 말로 연대사를 시작했다.

**1959년 3월 10일 첫 봉기 기려
중국의 강경 탄압 철회 주장**

**종교·NGO·정치권 연대 확인
"중국, 평화적 대화 촉구 나서라"
49일간 중대사관 앞 1인 시위**

퇴후 스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이 라마 스님을 한국으로 모셔 법문을 듣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의식해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초반 티베트 라싸를 순례하며 중국의 폭압에 분개한 바 있다. 당시 순례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 '우리가 티베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티베트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불법으로 암흑을 이겨낸다'는 티베트 국가의 마지막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자유를 위한 티베트의 투쟁은 가장 낮은 곳, 약자를 위한 진보 정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며 "인권은 보편적 가치지만만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티베트 자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몰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용환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신부, 푸라 비마행동 대표 등이 연대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민중봉기 54주년을 맞아 티베트의 자유를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티베트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정부는 티베트 민중의 소원인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중국정부에게 △티베트 망명정부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 △티베트 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것 △트루옥 중인 900명의 티베트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임의 체포와 고문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주최 측은 3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49일 간 티베트 자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1시간씩 진행하며, 4월 29일에는 이를 회향하는 촛불 문화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한국, 티베트 문제 관심 가져달라"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

"1946년 중국 군인들이 티베트 동쪽에서부터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철저히 침략 당했고, 결국에는 그들 영토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점령하는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티베트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하우스 코리아 사무총장 텐진 남카스님(사진)은 중국에 의한 티베트 침략의 소사(小事)를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남카스님은 중국 지배하에 놓인 상황이 결과적으로 티베트 국민들에게는 억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를 전근대적 봉건 사회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전 민중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티베트인들의 봉기는 끊이지 않고 있고 분신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장대로 티베트 민중들이 행복하다면 중국 측은 말을 따를 것이고, 유혈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님은 중국이 티베트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

명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베트가 원하는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철저히 티베트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비폭력 평화주의의 '중도정책'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티베트가 바라는 것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텐진 남카스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불자와 사회에게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일제시대의 고통을 겪어 본 한국이야말로 티베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대승불교 전통을 지닌 국가의 국민으로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작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상표권자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공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공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공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정·부정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허락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p>강의 일정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공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공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공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공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